

사회적경제 단일유형 조직과 복합유형 조직 비교연구

: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을 중심으로

김형돈*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비교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 형태 하나를 가진 조직은 단일유형이고 둘 이상을 가진 조직은 복합유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핵심 속성을 포괄하는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첫째, 복합목적은 다양한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이다. 국가의 1섹터, 영리기업의 2섹터, 시민·지역사회의 3섹터 목적 중에서, 복합유형은 3섹터 목적을 가장 많이 추구하며 단일유형은 2섹터 목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둘째, 다중이해관계자는 의사결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특성이다. 복합유형 조직이 단일유형 조직보다 의사결정에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복잡한 세 가지 조직 형태를 갖춘 복합유형이 제일 많이 참여시킨다. 셋째, 복합자원동원은 다양한 섹터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특성이다. 전체적으로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제어 :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 제 1 저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연구교수(moneykim77@naver.com)

I. 서 론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와 2000년대 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넘어선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1년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 더불어 자활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식되면서 사회적경제의 외연이 확장되었다(김형돈, 2019a: 126). 이들 조직은 하나의 조직처럼 개별적으로 연구됐지만, 현장에서는 복수의 조직형태를 갖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이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한 연구는 충분치 않다(민윤경, 2016; 김경휘·백학영, 2019; 김형돈, 2020).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재는 사회적경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복잡함을 초래한다. 예컨대 자활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경우, 연구대상을 설정할 때 자활기업으로 하면 자활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분류되어 분석된다. 이렇게 되면 자활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결과는 혼재되어 현상을 정확히 포착하기 어렵다. 이 문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에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라든가, 1인 1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등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들 여러 특성을 포괄하는 것은 이념형(ideal type) 사회적기업¹⁾ 특성이다. 이념형 사회적기업은 Pestoff(1992)가 제안한 복지 삼각형(welfare triangle)의 중앙에서 활동하는 조직으로 개념화된다. 이는 복지 삼각형의 세 꼭짓점에 자리하는 1섹터(국가)에 의한 재분배, 2섹

1) 여기서 말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과는 다르다. 이론에 바탕을 뒀서 정의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물론, 인증요건에 이념형 사회적기업으로 정의되는 특성이 다소 있지만, 본질적인 특성과 수준이 다르다(정원오·김형돈, 2019: 58). 본 연구에서는 ‘인증받은’ 사회적기업과 이념형 사회적기업을 엄격히 구분해서 사용한다.

터(시장)에서의 교환, 3섹터(시민·지역사회)²⁾의 연대를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인 호혜성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것이다(이해진, 2015). Polanyi의 거대한 전환을 위한 ‘다시 물어 들기’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해석되어(김영철, 2011), 새로운 사회경제 모델과 대안 경제로 볼 수 있다(원용찬, 2012). 복지삼각형 중앙에서 활동한다는 의미는 목적추구, 이해관계자 참여, 자원동원 측면에서, 세 가지 섹터의 기능을 모두 수행한다는 것이다. 바로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의 특성이다(김성기, 2009; 김형돈, 2015; 장원봉, 2009; Defourny and Nyssens, 2006; Gardin, 2006).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어느 정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세부 특성인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특성에 관한 개념연구(김성기, 2009; 김형돈, 2015)와 실증연구(장원봉, 2009; 김형돈, 2019b; 정원오·김형돈, 2019; 정원오 외, 2019; Campi et al., 2006; Gardin, 2006)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등장하기 시작했다. 사회적경제 조직형태로 전환하는 자활기업 연구(정아윤, 2008; 백학영·조성은, 2009; 김정원, 2012; 이현주, 2015; 백학영 외, 2018; 지규옥·김홍주, 2018)에서 출발하여,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단일·복합유형 연구(민윤경, 2016; 김경휘·백학영, 2019)가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유일하다(김형돈, 2020).

현재까지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인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확

2) 3섹터 개념은 1970년 Jacques Chaban-Delmas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고, 197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던 Jacques Delors에 의해 공식적으로 개념화되었다. 3섹터란 1섹터(국가)나 2섹터(시장)와 구분되는 영역이며, 비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회적 활동영역을 의미한다(노대명, 2011: 2).

인하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일유형 내에서 그리고 복합유형 내에서의 동질성과 이질성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치를 갖는다. 학술적 가치로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적경제 조직 특성과 현실의 조직특성을 확인해 본다는 점이다. 정책적 가치로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제도화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법, 제도 및 정부부처 기반의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들이 중첩되는 현상을 규명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책현상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적경제 발전에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적 가치로는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이념형 사회적기업에서 더욱더 가까운지 알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이 장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유형이 등장하는 원인을 간략히 검토한다.³⁾ 복합유형 조직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의하는 다양한 접근법 때문에 발생한다. Defourny(2001: 4-7)는 법·제도적 접근(legal/institutional approach)과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조직형태 중심의 접근이고, 후자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공통으로 지니는 원칙 중심의 접근이다(<표 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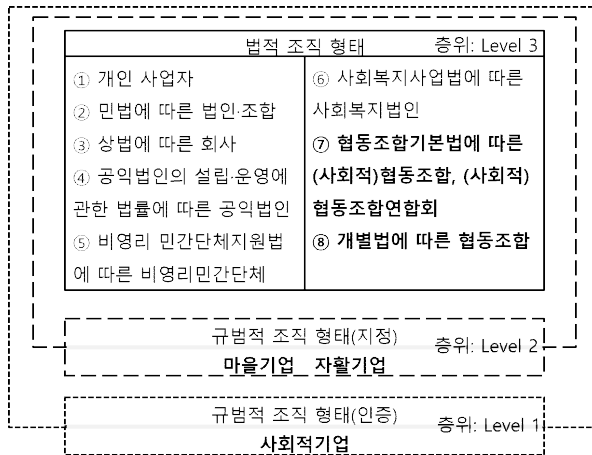
3) 사회적경제조직의 복합유형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형돈(2020)을 참고하라.

〈표 1〉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 대한 접근방법

접근방법	내용
법적·제도적 접근	• 협동조합형 기업조직 • 상호공제조합형 조직 • 결사체
규범적 접근	• 이윤 창출보다는 사람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려는 목적 • 독립적인 관리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소득 분배에서 사람과 노동의 자본에 대한 우위

자료: Defourny(2001)

〈그림 1〉 사회적경제 조직형태의 복합유형이 나타나는 제도적 원인



자료: 김형돈(2020)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정의하는 방식은 법·제도적 접근과 규범적 접근이 다양한 층위에 혼재되어 있다(김형돈, 2020). [그림 1]에서 보듯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서로 다른 층위에 수직으로 분포한다. 가장 상위 층위에는 법·제도적 접근인 법적 조직형태가 자리하고 여기에는 사회적협동조합만 해당한다. 다음 층위는 규범적 조직이 중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인증과 지정요건에 사회적 목적과 가치가 포함되어 있

다. 바로 이것이 두 개 이상의 조직형태를 갖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이 발생하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 등이 조직 형태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선택함으로써 복합유형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존의 영리기업의 법적 형식인 주식회사와 차별화된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법 제도에 기반을 둔 국가 지원과 인증과 지정체계라는 한국적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화 특성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2.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

1) 복합목적 특성

이 장에서는 복합목적 특성의 이론적 토대를 검토하고, 선행연구가 복합 목적을 분류한 내용을 확인한다. 전통적인 조직이론의 관점에서는 조직은 하나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가정했다(오석홍, 2011). 예컨대 미시경제학에서 가정하는 기업의 유일한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다. 이러한 가정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이다. 조직을 열린 시스템으로 보는 Thompson(1967)에 따르면,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목적의 다양성이 조직의 전형적인 특성이다(김형돈, 2019b; Campi et al., 2006). 행동이론에서는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연합체로서 다양한 목표를 갖는다고 본다(정진필 외, 2000).

선행연구들이 정의한 복합목적 분류를 확인해보면,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으로 구분한 연구가 대부분이다(곽선화, 2009; 김형돈, 2019c; OECD, 1999; Alter, 2007). Defourny와 Nyssens(2006)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에 사회·정치적 목적을 추가하여 3가지 목적으로 분류했다. 경제적 목적은 기업적인 속성과 관련된 것이고, 사회적 목적은 지역사회 이익과 관련되며, 사회·정치적 목적은 경제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고 촉진하는 것 등이다(김형돈, 2015). 김형돈(2019b)은 Pestoff(1992)의 복지 삼각형을 토대로 영리섹터 목적, 공공섹터 목적, 제3섹터 목적으로 복합목적을 분류했다.

세 가지 섹터의 주체에 따라 목적을 분류한 것이다. 정원오·김형돈(2019b)은 복합목적을 5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5점 척도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1차로 영리섹터 목적, 공공섹터 목적, 제3섹터 목적으로 분류한 다음, 2차로 교환의 주요 대상자와 투입 자원의 성격을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2) 다중이해관계자 특성

복합목적 특성을 확인한 데 이어서, 이해관계자 이론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이 분류한 이해관계자 범주를 확인한다. 가장 폭넓게 활용되는 Freeman(1984)의 정의에 따르면, 이해관계자란 ‘조직의 경영활동과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집단’이다(여영현, 2012; 김형돈, 2019b). 이해관계자는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Campi et al., 2006).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으며 그들 중 일부는 참여한다(정원오·김형돈, 2019). 조직 또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킬 인센티브가 있다.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직의 생존과 성장에 중요하기 때문이다(김형돈, 2019b). 첫째,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하는 자원을 지속적이며 동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상민, 2012). 둘째, 이질적이며 다양한 목적 간 균형을 잡아주어 조직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의 우선성보다는 다원성을 강조하기에 특정 이해관계자만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김동주, 2009).

선행연구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분류한 걸 검토하면, 이해관계자를 분류는 하되 세부 분류까지는 하지 않은 연구가 다수다(장원봉, 2009; 장원봉 외, 2009; Campi & Grégoire, 2006). 이들 연구는 이해관계자를 이용자와 고객, 자원봉사자, 직원, 프로그램참여자, 민간부문(기업), 공공부문(정부), 제3섹터(비영리단체), 기타로 구분했다. 장승권 외(2008)는 이해관계자 유형을 영향력, 정당성, 긴급도를 기준으로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김성기

(2010)는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로 구분하였다. 내부 이해관계자는 관리직원(경영진, 대표경영자 포함), 고용된 노동자, 조합원 또는 회원(비고용), 자원봉사자, 기금제공자, 모조직 관계자, 주주, 기타로 분류했다. 외부 이해관계자는 영리 부문 관계자, 비영리 또는 사회적기업 부문 지원자, 공공 부문 관계자, 지역사회 명망가, 이용자 대표, 외부 전문가(회계사, 변호사, 사회복지기관장, 경영컨설턴트, 노무사 등), 기타로 분류했다. 정원오·김형돈(2019)은 1단계로 내부이해관계자와 외부이해관계자로 분류하고, 2단계로 다시 외부이해관계자를 영리섹터, 공공섹터, 제3섹터로 분류했다. 섹터 별로 더욱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3) 복합자원동원 특성

지금까지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자원동원의 배경이 되는 이론을 검토하고, 자원의 분류방식을 확인한다. Gardin(2006)은 조직을 경제적 측면에서 연구하는 목적은 다양한 경제원리를 활용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원의 출처, 자원의 경제원리 유형, 자원의 목적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중에서 자원의 출처와 자원의 경제원리 유형은 Pestoff(1992)가 제안한 복지 삼각형의 구성 요소로서 이념형 사회적기업을 정의한다(김형돈, 2019b). 자원의 출처는 1섹터, 2섹터, 3섹터고 자원의 경제원리 유형은 이들 섹터에 대응하는 재분배원리, 교환원리, 호혜성원리다. 이념형 사회적기업은 복지 삼각형의 한 가운데 위치하는 것으로 개념화되기에 복합자원동원 특성은 모든 섹터의 자원을 혼합하는 특성이다(김형돈, 2015).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다양한 자원의 분류방식을 확인한다. 교환원리, 재분배원리, 호혜성원리가 현대경제에서는 시장경제, 비 시장경제, 비화폐 경제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논의(Bode et al., 2006)를 바탕으로, 복합자원동원을 분류한 연구가 있다(장원봉, 2009; 장원봉 외, 2009; Gardin, 2006). 이들 연구는 자원의 출처 측면에서는 개인, 민간섹터, 공적섹터, 제3섹터로 분류

하였다. 자원의 경제원리 유형 측면에서는 화폐적 자원인 매출액, 보조금, 기부금 등과 비화폐적 자원인 간접 보조금과 자원봉사 업무로 분류하였다. 김성기(2010)는 일차적으로 시장자원, 공공자원, 호혜적 자원으로 분류하였고, 이차적으로 시장자원을 다시 사회적 시장자원과 일반시장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김형돈(2019b)과 정원오 외(2019)는 복지 삼각형을 바탕으로, 영리 섹터 교환기반 자원, 공공섹터 재분배기반 자원, 제3섹터 호혜성기반 자원으로 분류하였다.

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인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특성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이다. 단일·복합유형과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선행연구는 없다. 따라서 이 둘 중 하나의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각각 고찰하여야 한다.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개념연구(김성기, 2009; 김형돈, 2015)와 실증연구(장원봉, 2009; 김형돈, 2019b; 정원오·김형돈, 2019; 정원오 외, 2019; Campi et al., 2006; Gardin, 2006)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념연구를 살펴보면, 김성기(2009)는 복합목적은 생산성, 다중이해관계자는 민주성, 복합자원동원은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연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에서 파생되는 정책적 함의를 논의했다. 김형돈(2015)은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이 조직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밝혔다.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인과경로(causal relationship path)를 규명하였다.

실증연구는 두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의 현황을 파악한 기술적 연구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개별 특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정한 인과적 연구이다. Campi et al.(2006)은 유럽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Gardin(2006)도 동일한 연구대상으로 복합자원동원 실태를 연구하였다. 장원봉(2009)은 위 두 연구와 동일한 설문 도구를 사용해서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이 지닌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원오 외(2019)는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을 유형화했다.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검정한 연구는 최근에 시도되고 있다. 김형돈(2019b)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복합목적과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효과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정했다. 정원오·김형돈(2019)은 다중이해관계자 매개효과를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다.

이와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비교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로 전환하는 자활기업에 관한 연구(정아윤, 2008; 백학영·조성은, 2009; 김정원, 2012; 이현주, 2015; 백학영 외, 2018; 지규옥·김홍주, 2018)를 시초로 볼 수 있다. 정아윤(2008)과 백학영·조성은(2009)의 연구는 자활공동체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김정원(2012)은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백학영 외(2018)와 지규옥·김홍주(2018)는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운영, 변화과정을, 이현주(2015)는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자활기업의 경험에 대해 질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이어받아서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형태를 동시에 갖는 복합유형에 관한 연구(민윤경, 2016; 김경휘·백학영, 2019; 김형돈, 2020)가 등장했다. 민윤경(2016)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활기업을 ‘이중멤버십’ 조직이라 하고, 자원의존 경험, 지원사업에 대한 경험, 지원체계로부터 받는 자원통제 경험을 질적 연구하였다. 김경휘·백학영(2019)은 자활기업을 모집단으로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비교하였다. 단일유형보다 복합유형이 일자리 창출, 여성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율, 그리고 매출 측면에서 높은 성과를 보인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이 연구를 이어서 김형돈(2020)은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으로 모집단을 확장하여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경

제적 성과와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사회적성과는 복합유형이 더 높지만, 경제적 성과는 혼재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특성으로 인식되는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을 중심으로,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조직을 비교한 연구는 없다.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조직을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차원에서 비교한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과 데이터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인데, 이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아직 없다(정원오 외, 2019). 본 연구는 제도적 정의를 따라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정의한다.⁴⁾ 현재 널리 통용되는 제도화된(일반화되었다는 의미에서) 정의를 사용하면, 정책입안자나 사회적경제운동 참여자들로부터 신뢰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회적경제의 ‘통계적 정의’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상윤·윤길순, 2019). 다만 농협, 수협,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일반협동조합은 제외하고 사회적협동조합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농협 등은 개발독재시기에 관제화되어(장종익, 2017), 성장 과정과 조직문화가 민주성 등 사회적경제 원리와

4)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 2호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서울특별시장이 정하는 마을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이나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으로 정의한다(김형돈, 2019a: 137).

괴리되기 때문이다(신명호, 2017). 그러나 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협동조합은 농협 등과 질적으로 달라서 포함할 필요가 있다.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후 설립된 협동조합이 연구대상에서 빠진 점은 본 연구의 표본추출 한계로, 후속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이다.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모집단으로 설정하고 할당표본추출로 표집했다. 비확률 표집인 할당 표본추출을 한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표본 프레임을 구성할 정도로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데이터 공개 수준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고, 둘째는 확률표본추출이 불가능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Maisel and Persell, 1996). 할당의 기준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유형별 비율(<표 2>)로 삼고, 아래의 수식과 같이 표본 개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진이 이론과 문헌을 검토하여 설문 문항을 개발한 후, 사회적경제 조직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시행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측정오류 문제를 처리하였다.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총 202개 조직의 자료를 자기 응답식 설문지로 이메일과 우편을 혼용하여 수집하였다. <표 3>의 내용이 추출된 표본의 조직별·지역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 2〉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모집단 현황

	사회적기업 (2013)	사회적협동조합 (2015)	마을기업 (2014)	자활기업 (2012)	전체
서울	210	108	92	176	586
경기도	167	105	162	181	615
전체	377	213	254	357	1201

자료: 공공데이터 포털 제공 <https://www.data.go.kr/#/L21haW4>

5) 협동조합 기본법을 시행한 후 5년(2012~2017년) 동안 1만 2,318개의 협동조합이 설립(장종익, 2017: 2)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김형돈, 2019a: 137).

$$\text{표본 개수} = \frac{x_{ij}}{\sum_{i=1}^4 \sum_{j=1}^2 x_{ij}} \times 200$$

i= (1) 사회적기업, (2) 사회적협동조합, (3) 마을기업, (4) 자활기업

j= (1) 서울, (2) 경기

〈표 3〉 서울·경기지역 사회적경제 조직 표본조사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전체
서울	35	20	15	32	102
경기도	31	19	25	25	100
전체	66	39	40	57	202

표본 조사한 <표 3>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김경휘·백학영(2019)은 기존 조직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자활기업을 ‘단일유형 사회적경제조직(sing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으로, 그리고 자활기업으로 시작했다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조직 형태를 취득한 조직은 ‘복합유형 사회적경제조직(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이라고 정의했다. 김형돈(2020)도 이러한 정의가 타당하다고 보아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정의를 따른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하나의 조직형태만 갖는 조직을 단일유형으로, 그리고 어떤 조합이든 둘 이상의 조직형태를 갖는 조직을 복합유형으로 분류한다.

2.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방법

사회적경제 조직의 복합목적 특성은 이질적인 다양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다양한 목적을 정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1섹터, 2섹터, 3섹터에서 활동하는 조직들이 추구하는 고유의 목적을 분류해야 한다. 어떤 조직의 목적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직이 투입하는 자원의 성격을

보면 된다. 1섹터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국가 또는 정부조직이다. 이들 조직의 목적은 공공재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리후생을 최소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다(김형돈, 2019b). 사회적경제와 연관된 역할 중 대표적인 것은 취약계층 고용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이나 여타 사회적경제 조직의 요건에서 공통으로 등장한다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2섹터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영리기업이다. 이들 조직의 목적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조직 자원의 투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투자와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로 구성된다.

〈표 4〉 섹터별 목적, 이해관계자 자원동원의 변수

영역		공공영역	민간영역	
섹터		1섹터(국가)	2섹터(영리기업)	3섹터(시민·지역사회)
목적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	-지역사회 공헌 -조직구성원의 자원봉사 -경영진
이해 관계자		-연계·협력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객 (소비자, 서비스 수혜자) 또는 이용자 (비조합원) -연계·협력 영리(민간)기업	-전문가 집단 (교수,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컨설턴트) -지역사회 네트워크 (단체) 및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 -비영리단체 (법인의 자격으로 참여) -유급근로자 (대표)
자 원 동 원	시 장 자 원	-공공시장 매출액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익계약 매출액	-민간시장 매출액	-사회적경제 조직 간 매출액 -중간지원 조직 또는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매출액
	비 시 장 자 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사무실, 창고, 임대지원 및 무상임대 -기타	-기업의 기부금(후원금 또는 물품 등) -기업의 자원봉사자 -기업의 프로보노	-개인의 기부금 (후원금 또는 물품 등) -개인의 자원봉사자 -개인의 프로보노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조직은 시민·지역사회조직으로, 이들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연대를 강화하며 사회적 자본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사회 공헌과 조직구성원의 자원봉사 형태로 조직의 자원을 투입한다(정원오 외, 2019). 전자는 화폐적인 투입의 대리변수이고 후자는 비화폐적인 활동 형태의 투입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사회적 자본과 관련해서는 화폐적인 변수와 비화폐적인 변수를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화폐적 변수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투자를 위한 사내유보, 지역사회 공헌은 회계연도 기준 액수로 측정하였다. 비화폐적 변수인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조직구성원의 자원봉사자는 회계연도의 사람 수로 측정하였다.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의 정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분류의 기준은 다양한데, 일차적 이해관계자와 이차적 이해관계자, 자발적 이해관계자와 비자발적 이해관계자, 시장이해관계자와 비시장 이해관계자, 내부 이해관계자와 외부 이해관계자 등이 있다(여영현, 2012).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확인했었다. 1섹터 이해관계자는 사회적경제 조직과 연계 및 협력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다. 한국 사회적경제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는 점(이수창·정우열, 2014; 김숙연·강수진, 2017; 김형돈, 2019c)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다. 2섹터 이해관계자는 고객(소비자, 서비스 수혜자) 또는 이용자(비조합원)와 연계 및 협력을 하는 영리기업이다. 고객은 윤리적 소비 등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상호작용한다. 영리기업은 CSR 활동을 통해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프로보노로 각종 전문 지식을 사회적경제 조직과 공유한다. 3섹터 이해관계자는 경영진, 유급근로자,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 그리고 비영리 단체로 구성된다. 사회적경제 조직구성원과 외부이해관계자가 함께 분류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시민·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기에 경영진과 조직의 구성원은 사회적기업가 또는 활동가의 성격을 갖는다. 조직구성원 전체가 3섹터 이해관계자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하다(정원오 외, 2019). 이들

과 외부이해관계자인 전문가 집단,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주민, 자원봉사자 또는 후원자, 그리고 비영리단체로 제3섹터 이해관계자가 분류된다. 이해관계자 변수 측정은 3개 섹터 9개의 이해관계자 범주를 개별 문항으로 구성하고, 참여시키는 모든 이해관계자에 응답하는 다중응답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복합자원동원 특성은 다양한 섹터로부터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거래인 시장자원과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래인 비시장 자원으로 나뉜다. 국제연합 국민계정체계(United Nations 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와 유럽 국민계정체계(European System of National and Regional Accounts: ESA)를 바탕으로, CIRIEC·스페인 과학위원회는 사회적경제의 하위 부문을 시장과 비시장 부문으로 이루어졌다고 정의했다(이상윤·윤길순, 2019: 50-51). 따라서 이들 두 차원에서 1섹터, 2섹터, 3섹터 교환 주체에 따라 자원을 분류하면, 다양한 섹터 자원의 혼합 정도를 통해 복합자원동원 특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시장자원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입인 매출액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매출액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장자원 변수다(김형돈, 2015; 안영규·박의룡, 2011; 정대용·김민석, 2010; 조상미 외, 2012; 최석현·남승현, 2015; 김형돈, 2019b; Gardin, 2006). 공공시장 매출액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와 수의계약 매출액은 1섹터 시장자원의 대리변수다. 거래 주체가 1섹터의 정부조직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중요한 정부 지원 중 하나로 평가받는(김용호·송경수, 2010; 정원오 외, 2019) 동시에 시장을 통한 거래이기에 포함된다. 일반 소비자나 영리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민간시장 매출액은 2섹터 시장자원 변수다. 사회적경제 조직 간 매출액과 중간지원 조직 또는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매출액은 3섹터 시장자원의 변수다. 시장자원 변수인 매출액은 모두 화폐적 변수라서 회계연도 기준 액수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비시장 자원은 사회적 가치 창출이나 사회적 자본과 연관되는 자원들을 1섹터, 2섹터, 3섹터 교환 주체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알 수 있다.

정부의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비 지원, 사무실, 창고, 임대 지원 및 무상임대, 기타 등 제도적 지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반대급부이기에 1섹터 비시장 자원 변수로 볼 수 있다. 시장을 통하지는 않지만, 엄연히 거래인 것이다. 2섹터와 3섹터의 비시장 자원 변수는 사회적 자본이나 호혜성에 바탕한 교환과 관계되는 변수다. 기부금(후원금 또는 물품 등)은 다수의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자본 성격을 가진 자원이다(김준환, 2004; 이용재·김봉환, 2013; 김형돈, 2019b; Laville and Nyssens, 2001; Haugh, 2005; Spear and Bide, 2005). 자원봉사 또한 사회적경제에 가장 중요한 호혜성 자원으로 간주된다(김성기, 2009; 정원오 외, 2019; Laville and Nyssens, 2001; Gardin, 2006; Kerlin, 2006). 프로보노는 기업이나 개인이 자신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폐적 대가 없이 하는 넓은 의미의 기부이다. 화폐적 변수인 인건비 지원 등 정부지원 변수들, 기업과 개인의 기부금은 회계연도 기준 액수로 측정하였다. 비화폐적 변수인 기업과 개인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자는 회계연도의 사람 수로 측정하였다. 2섹터와 3섹터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측정한 것이다.

본 연구가 다루는 변수 중에서 목적과 비시장 자원동원에는 화폐적자원과 비화폐적 자원이 혼재되어 있어 그 측정단위가 다르다. 측정단위를 통일해야만 분석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변수의 z값을 산출해서 측정단위를 통일했다. z값 방법은 평균은 0으로 표준편차를 1로 만드는 대표적인 표준화 방법(남기표·김기철, 2013; 정원오 외, 2019)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매출액 변수는 음수(적자)를 포함하기에 총합하는 과정에서 부호의 방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데이터 분석이 왜곡되지 않도록, 음수 z값의 가장 큰 절댓값보다 큰 양수⁶⁾를 더해서 평균을 우측으로 일괄 이동시켰다. 이렇게 하면 위치만 바뀌고 분포는 그대로여서 정보가 왜곡되지 않는다(김형돈, 2019b). 산출된 z값을 바탕으로 아래 수식의 방법으로 세 가지 섹터 각각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였다.

6) 자원투입의 z 최솟값은 -0.37이라서 0.5를 더했고 자원혼합 z 최솟값은 -0.69라서 1을 더했다.

$$x_i = \frac{z_i}{\sum_{i=1}^3 z_i} \quad \sum_{i=1}^3 x_i = 1 \quad \text{or} \quad 100\%$$

i=1: 1섹터 목적, 비시장자원

i=2: 2섹터 목적, 비시장자원

i=3: 3섹터 목적, 비시장자원

IV. 연구결과

1.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복합목적 특성

첫 번째 연구목적인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복합목적 추구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다.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1섹터 32.5%, 2섹터 36.8%, 3섹터 30.7%의 자원투입 구성을 보이고,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1섹터 35.5%, 2섹터 32.2%, 3섹터 36.4%의 자원투입 구성을 보인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차이점이 드러난다.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2섹터 투입이 가장 많고 1섹터 투입과 3섹터 투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적지만,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3섹터와 1섹터 투입이 비슷한 수준으로 많고 2섹터 투입은 가장 적다. 섹터별 자원투입의 표준편차를 보면, 단일유형은 5.8%이고 복합유형은 10.6%이다. 단일유형은 균형 잡힌 복합목적을 추구하며 복합유형은 특정 목적에 더욱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유형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단일유형에서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1섹터 목적의 투입이 가장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2섹터 목적의 투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에 더 가중치를 두고 활동하는 반면, 후자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경제적 목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목적(투입) 비율

유형	N	1섹터	2섹터	3섹터	표준편차
사회적기업	63	38.4%	31.8%	29.8%	4.5%
사회적협동조합	25	37.5%	32.6%	29.9%	3.9%
마을기업	19	25.2%	42.2%	32.6%	8.5%
자활기업	37	28.8%	40.6%	30.6%	6.4%
단일유형 평균	144	32.5%	36.8%	30.7%	5.8%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3	19.2%	21.5%	59.3%	22.5%
사회적기업+자활기업	8	27.4%	33.4%	39.2%	5.9%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5	33.0%	43.0%	24.1%	9.5%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20	25.8%	36.7%	37.5%	6.5%
마을기업+자활기업	1	32.4%	37.1%	30.5%	3.4%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3	50.9%	21.6%	27.5%	15.5%
복합유형 평균	29	35.5%	32.2%	36.4%	10.6%
전체 평균	173	31.9%	34.1%	34.1%	8.7%
F		2.62***	2.11**	.64	

주: ** = $p < .05$, *** = $p < .01$

단일유형이 대체로 동질적인 데 비해 복합유형은 이질성이 크다. 먼저 목적 간 균형을 기준으로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집단은 목적 간 편차가 큰 그룹과 편차가 작은 그룹이다. 표준편차가 22.5%로 가장 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유형은 3섹터 목적이 59.3%로 압도적으로 많고, 2섹터 목적 21.5%와 1섹터 목적 19.2%의 구성을 보인다. 지역사회 목적에 집중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편차가 다음으로 큰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유형은 1섹터 목적이 5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3섹터 목적이 27.5%이며 2섹터 목적이 21.6%이다. 공공의 영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하는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목적 간 편차가 작은 그룹은 총 4개의 유형인데, 이들 유형도 두 집단으로 구분된다. ‘사회적기업+자활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유형은 3섹터 목적의 투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과 ‘마을기업+자활기업’유형은 2섹터 목적의 투입이 가장 많다.

2.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다중이해관계자 특성

두 번째 연구목적인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확인한다. 첫 번째 단계는 몇 개의 이해관계자 범주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지 확인하고,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이해관계자별 참여 분포를 확인한다.

첫 번째 단계인 조직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범주의 절대적인 개수를 본다. 단일유형은 1.94개 범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복합유형은 2.33개 범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복합유형이 단일유형 보다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단일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2.80개, 사회적협동조합 1.95개, 마을기업 1.57개, 자활기업 1.41개 순으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이해관계자를 가장 많이 참여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을 가진 이념형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첫째 이유와 연관되어 인증요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복합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삼중유형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이 3.33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범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조직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장 많이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은 복합유형은 ‘사회적기업+자활기업’으로 3.13개를 참여시킨다. 가장 많은 삼중유형과 이 유형 모두 사회적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이 이해관계자를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다. 단일유형에서 가장 많은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유형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점을 보아도 그렇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은 1.36개로, 전체에서 가장 적게 이해관계자를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7) ‘마을기업+자활기업’유형은 복합목적과 복합자원동원에서는 1개의 조직이 나타났지만, 이해관계자에서는 유효케이스가 없어서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표 6〉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이해관계자 범주 평균 개수

유형	N	평균
사회적기업	51	2.80
사회적협동조합	22	1.95
마을기업	14	1.57
자활기업	17	1.41
단일유형 평균	104	1.94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2	1.83
사회적기업+자활기업	8	3.13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2	2.00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14	1.36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3	3.33
복합유형 평균	39	2.33
전체 평균	143	2.18
F	6.18***	

주: *** = $p < .01$

두 번째 단계는 개별 이해관계자별 참여 분포를 확인한다. 아래 <표 7>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시키는 8개의 개별 이해관계자의 현황이다.⁸⁾ 87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의사결정에 제3섹터 이해관계자인 유급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관계자 중에서 유급근로자가 가장 많이 참여하는 건 조직 내부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작동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24개 조직, 민간기업 20개 조직, 지역사회주민 19개 조직으로 많이 참여시키고 있다. 이 중 민간기업을 제외하면 모두 제3섹터 이해관계자들이다. 가장 적게 참여시키는 이해관계자는 정부 이해관계자와 고객 이용자로, 5개 조직만 참여시키고 있다. 정부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조직이 적은 경우는 사회적경제의 자발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8) 총 이해관계자 범주는 9개지만 이 표에서는 경영진을 제외한 8개만 제시하였다. 경영진은 의사결정에 항상 참여하기 때문이다.

〈표 7〉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이해관계자 범주별 분포

유형	1섹터	2섹터		3섹터				
	정부	고객 이용자	민간 기업	전문가	지역사 회주민	자원 봉사자	비영리 단체	유급 근로자
사회적기업	2	3	14	14	9	3	5	44
사회적협동조합	-	1	-	3	3	-	2	13
마을기업	-	-	-	1	2	1	1	4
자활기업	2	-	1	-	1	-	1	2
단일유형 평균	4	4	15	18	15	4	9	63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	1	2	-	2	-	7
사회적기업+자활기업	1	-	3	2	3	-	1	7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	1	-	-	-	-	-	2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	-	-	1	-	-	-	6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	-	1	1	1	1	2	2
복합유형 평균	1	1	5	6	4	3	3	24
전체 평균	5	5	20	24	19	7	12	87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이해관계자 참여 양상을 비교할 때 난점이 있다. 복합유형은 유효케이스가 단일유형보다 매우 적어서, 이해관계자 범주에서 나타나는 빈도수를 직접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따라서 하나의 유형에서 많이 참여시키는 이해관계자 범주와 적게 참여시키는 이해관계자 범주에 관심을 둔다. 이는 <표 7>을 해석할 때 열 방향이 아닌 행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일유형은 유급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조직이 63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다음으로 전문가 18개 조직, 지역사회주민 15개 조직, 민간기업 15개 조직이 참여시키고 있다. 복합유형도 유급근로자를 참여시키는 조직이 24개로 가장 많고, 전문가 6개, 민간기업 5개, 지역사회 주민 4개 조직이 참여시키고 있다.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모두 이해관계자 참여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복합자원동원 특성

세 번째 연구목적인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 복합자원 동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한다. 시장 자원동원을 먼저 확인한 다음 이어서 비시장 자원동원을 검토한다.

시장 자원동원의 경우 단일유형은 1섹터 38.9%, 2섹터 52.1%, 3섹터 9.0%이고, 복합유형은 1섹터 42.3%, 2섹터 57.1%, 3섹터 0.7%의 시장 자원동원 구성을 보인다. 단일유형의 시장 자원동원 양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유형은 ‘사회적협동조합’이다. 자원 구성의 표준편차가 5.9%로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1섹터 자원 27.5%, 2섹터 자원 39.3%, 3섹터 자원 33.2%로 세 가지 섹터의 자원동원이 균형 잡혀 있는 것이다. 균형 잡힌 자원동원의 핵심 요인은 3섹터 자원이다. 3섹터 자원은 30%대로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많게는 30배에서 적게는 3배를 더 동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유형은 1섹터 자원이 가장 많고, ‘마을기업’유형과 ‘자활기업’유형은 2섹터 자원의 비중이 더 크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등 국가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대신한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와 달리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은 기업적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2섹터 자원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

복합유형 중에서는 3섹터 자원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 유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마을기업+자활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유형이다. 이들 세 유형의 공통점은 자활기업이 모두 속해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자활기업’은 1섹터 자원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다. 이는 단일유형에서 확인했듯이, 사회적기업이 공통으로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마을기업+자활기업’은 2섹터 자원이 가장 많아서, 영리기업처럼 자원을 동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한 시장 자원동원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유형을 제외하면 3섹터 자원이 아주 미미한 수준을

보인다. 3섹터의 구성원인 사회적경제 조직 간이나 중간지원 조직 또는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거래는 현시점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다.

〈표 8〉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시장 자원동원 비율

유형	N	1섹터	2섹터	3섹터	표준편차
사회적기업	64	55.8%	43.9%	0.4%	29.2%
사회적협동조합	30	27.5%	39.3%	33.2%	5.9%
마을기업	19	39.0%	58.9%	2.1%	28.8%
자활기업	39	33.4%	66.3%	0.3%	33.0%
단일유형 평균	152	38.9%	52.1%	9.0%	24.2%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3	55.9%	42.4%	1.7%	28.2%
사회적기업+자활기업	8	74.4%	25.4%	0.2%	37.7%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5	35.3%	64.7%	-	32.4%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20	9.8%	88.1%	2.1%	47.6%
마을기업+자활기업	1	1.3%	98.7%	-	56.6%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3	76.8%	23.2%	-	39.4%
복합유형 평균	29	42.3%	57.1%	0.7%	40.3%
전체 평균	181	40.9%	55.1%	4.0%	33.9%
F		1.47	.70	8.05***	

주: *** = $p < .01$

비시장 자원동원의 구성을 보면, 단일유형은 1섹터 60.6%, 2섹터 17.3%, 3섹터 22.1%의 구성을 보이고, 복합유형은 1섹터 62.9%, 2섹터 17.9%, 3섹터 19.2%의 구성을 보인다. 자원의 구성 양태와 표준편차도 비슷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는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간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단일유형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사회적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3섹터 자원이 3분의 1을 넘는다. 1섹터 자원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3섹터 자원이 많으며, 2섹터 자원이 가장 적다. ‘자활기업’유형은 3섹터 자원이 가장 적고 표준편차가 단일유형 중 가장 커서 불균형한 자원 구성을 보인다. 특히 1섹터 공공자원에 대한 의존이 매우 크다.

복합유형 중에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표준편차가 작아서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비시장 자원동원 비율을 보인다. 하지만 구성을 자세히 보면 차이점도 드러난다.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은 1섹터 48.3%, 2섹터 15.6%, 3섹터 36.0%로, 2섹터 비중이 상당히 낮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은 1섹터 43.4%, 2섹터 22.7%, 3섹터 33.9%로, 2섹터 자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사회적기업+자활기업’유형은 3섹터 자원이 7.9%로 매우 적다. ‘마을기업+자활기업’유형은 1섹터 자원만 동원하고 다른 섹터의 자원은 전혀 동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유효케이스가 단 1개이므로 결과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원동원에서는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에 차이점을 보이지만, 비시장 자원동원은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표 9〉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의 비시장 자원동원 비율

유형	N	1섹터	2섹터	3섹터	표준편차
사회적기업	64	66.2%	21.0%	12.8%	28.8%
사회적협동조합	30	45.9%	16.9%	37.2%	14.9%
마을기업	19	45.4%	20.1%	34.5%	12.7%
자활기업	39	85.0%	11.0%	4.0%	44.9%
단일유형 평균	152	60.6%	17.3%	22.1%	25.3%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13	48.3%	15.6%	36.0%	16.5%
사회적기업+자활기업	8	55.6%	36.4%	7.9%	24.0%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5	70.0%	19.6%	10.4%	32.1%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	20	59.9%	12.9%	27.2%	24.1%
마을기업+자활기업	1	100.0%	-	-	57.7%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3	43.4%	22.7%	33.9%	10.4%
복합유형 평균	29	62.9%	17.9%	19.2%	27.5%
전체 평균	181	62.0%	17.6%	20.4%	26.6%
F		2.57***	2.16**	2.49**	

주: ** = $p < .05$, *** = $p < .01$

V. 결론과 함의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이념형 사회적기업 특성인 복합목적, 다중이해관계자, 복합자원동원 차원에서 비교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차적으로 하나의 조직 형태만 갖춘 단일유형 조직이 존재하고, 이차적으로는 2개 이상의 조직 형태를 보이는 복합유형이 공존한다. 이처럼 중층적으로 복잡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투입을 통해 복합목적 특성을 비교한 연구결과의 함의를 확인한다. 국가의 1섹터, 영리기업의 2섹터, 시민·지역사회의 3섹터 목적의 투입에서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보다 상대적으로 불균형한 자원투입을 보인다. 특히 3섹터 목적의 투입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단일유형은 상대적으로 균형 잡혀 있으며 2섹터 목적의 투입이 가장 많다. 복합유형은 단일유형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3섹터 목적의 투입인 지역사회 공헌과 조직구성원의 자원봉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투입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 자본을 확대 재생산한다. Putnam(1993)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참여자들이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공유한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도록 만드는 연결망, 규범,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징’이다(김도균·정선기, 2014).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 공헌과 조직구성원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신뢰를 형성한다. 이렇게 지역사회와의 결속을 통해서 재생산된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사회의 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더 많은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끌어낸다(채중현·최준규, 2012). 사회적 자본을 확대 재생산하며 확대 재생산된 사회적 자본은 다시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복합유형은 결사체로서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에 풀이된다.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와 이러한 재투자자를 위한 사내유보와 같은 2섹터 영리기업 목적의 투입이 더 많다. 생존을 위해 비즈니스적 영리 추구를 지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일유형이 복합유형보다 매출액이 적다는 실증분석 결과(김경휘·백학영, 2019)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목적 추구에 자원을 투입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섹터 목적과 같이 사회적 가치 창출로 분류할 수 있는 1섹터 목적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단일유형이 복합유형보다 덜 추구한다. 단일유형의 취약계층 고용이 복합유형보다 더 적다고 보고한 연구(김경휘·백학영, 2019)와 유사하다. 1섹터 목적의 하위구성 요소 중 하나가 취약계층 고용이기 때문이다.

둘째,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을 비교한 결과의 함의를 살펴본다. 복합유형 조직이 단일유형 조직보다 의사결정에 더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복합유형은 2.33개 범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단일유형은 1.94개 범주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한다. 특히, 가장 많은 조직 형태를 지닌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삼중유형은 3.33개로 전체에서 가장 많은 범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유형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을 포함하는 유형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을 가진 이념형 사회적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다른 하나는 첫째 원인과 연관되어 인종요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해관계자 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은 이해관계자별 참여 양상 측면에서는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3섹터 이해관계자는 많이 참여시키지만 1섹터 이해관계자와 2섹터 이해관계자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단일유형이나 복합유형 모두 이해관계자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섹터의 공공 이해관계자는 공동생산의 파트너 측면에서, 그리고 2섹터의 영리기업 이해관계자는 공유가치 창출의 파트너 측면에서 협동과 연대했을 때 시너지 효과

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 이외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서 복합유형 조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는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주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가 이러한 가능성을 지지한다. 전략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정부 관료, 기부자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다양한 자원을 원활하게 동원할 수 있고(Campi et al., 2006),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조직 정당성(organizational legitimacy)을 제고 하고(Ehnert and Harry, 2012; Galuppo et al., 2014에서 재인용), 다시 조직 정당성이 자원동원을 다양하게 만든다. 유재언(2012)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거버넌스 특성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정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성기(2010)는 사례연구를 통해 다중이해관계자 특성을 가진 사회적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연계된 다양한 자원을 동원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달성한다고 결론지었다. 김형돈(2019b)은 구조방정식으로 검정해서 이들 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복합자원동원 특성을 비교한 결과의 함의를 검토한다. 전체적으로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이 동질적인 모습을 보인다. 두드러진 차이는 시장 자원동원과 비시장 자원동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시장 자원동원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상치(outlier)라 할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복합유형이나 단일유형 모두 특정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3섹터 자원동원 여부이다. 가장 균형 잡힌 시장 자원동원을 보이는 사회적협동조합만 3섹터 자원의 구성이 30%대로, 다른 모든 유형에 비해 많게는 30배에서 적게는 3배를 더 동원하고 있다. 모든 유형이 3섹터 자원동원이 미미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마을기업+자활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유형은 3섹터 자원을 전혀 동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자활기업이 포함된 유형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 조직 간이나 중간지원 조직 또는 지역사회 단체를 통한 거래는 현시점에서 매우 부족한 것이다. 사회적경

제 생태계가 시장에서는 아직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호혜적인 사회적경제 간 거래를 늘릴 방안을 정책과 현장 모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안적 연대로서 호혜적 시장의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박성훈, 2009; 김성훈, 2012). 일방거래방식이 아닌 상호거래 방식으로 전환하고, 유사한 업종 조직간 초보적인 거래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인 거래 경험을 축적하고, 명확한 거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 거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송두범 외, 2012).

다음으로 비시장 자원동원의 구성을 보면, 평균적으로는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간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시장 자원동원과 비교했을 때, 제3섹터 자원을 많이 동원하여 상대적으로 균형 잡힌 자원 구성을 보인다. 3섹터 자원은 사회적자본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회적 자본은 비화폐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시장자원보다는 비시장자원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자본은 어느 정도 동원하지만, 호혜성 시장거래는 적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단일유형 사회적경제 조직과 복합유형 사회적경제 조직은 동질적인 면과 이질적인 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유형 조직의 발생 원인은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의 특성, 즉 고용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보완하며 정부의 재정적 지원체계와 이에 종속된 제도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일유형과 복합유형 모두 한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제도화의 특성상 국가의 지원체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질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구분하여 맞춤형 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연구의 접근방식을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디자인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태조사 단계에서부터 단일유형과 복합유형을 측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언급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며 마무리한다. 먼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관한 한계이다. 첫째는 비확률 표본 추출을 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서울·경기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한계이고, 셋째는 기술적(descriptive) 연구의 한계다. 첫째와 둘째 한계는 연구자원의 제약이 원인

이다. 이 두 가지 한계의 결과인 셋째 한계로는, 불충분한 표본 수로 일부 복합유형의 수가 너무 적어서 추론통계 수치를 제시는 했으나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을 충분히 확보한 인과적(causal)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둘째는 연구목적과 범위설정의 한계이다. 본 연구는 조직 유형(형태)과 조직 활동(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다루었다. 사실 단일·복합 유형 요인보다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인증 사회적기업 같은 요인이 이념형 사회적기업의 특성의 차이를 초래하는 주된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 즉, 유형에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유형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포함된 조직이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적경제 제도화와 바람직한(이상형적)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협동조합이), 또는 한국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으로서 복합유형 조직의 발생 원인과 특성에 관한 후속연구가 이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곽선화(2009). “07 인증 사회적기업의 성과분석과 과제”, 「사회적기업연구」, 2(1), pp.37 - 65.
- 김경휘·백학영(2019). “자활기업의 사회적경제조직 유형과 특성 비교 분석”, 「한국사회정책」, 26(2), pp.115-145.
- 김도균·정선기(2014).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과 지역의 사회자본 확장: 대전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1), pp.281 - 306.
- 김동주(2009).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본 기업의 외부적 CSR 활동과 종업원 및 주주의 이익”, 「인적자원관리연구」, 16, pp.29-47.
- 김성기(2009).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관한 쟁점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36(2), pp.139-166.
- _____(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김성훈(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손학규 의원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
- 김숙연·강수진(2017). “사회적기업 성과와 정부지원금과의 관련성”,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2), pp.1-19.
-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pp.25-49.
- 김용호·송경수(2010).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중요도에 대한 연구: 부산지역 전문가 AHP분석을 통한”, 「경영정보연구」, 29(4), pp.267-288.
- 김정섭·김경덕·임지은(2015).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실태와 활성화 방안」,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정원(2012). “자활공동체의 협동조합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경기도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0(2), pp.67-89.
- 김준환(2004).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 5, pp.89-120.
- 김형돈(2015).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인과 경로연구: 인과지도 분석틀과 사회적목적 유형별 분석을 중심으로

- 로”, 「사회복지정책」, 42(3), pp.293-322.
- _____ (2019a).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 목적, 성과, 상충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4), pp.125-158.
- _____ (2019b).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특성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9c).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체계적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4), pp.23-47.
- _____ (2020). “사회적경제 단일유형 조직과 복합유형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성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2(2), pp.81-113.
- 남기표·김철희(2013). “표준화 방법에 따른 기후변화 취약성 지수의 민감성 연구”, 「환경영향평가」, 22(6), pp.677-693.
- 노대명(2011). 「한국 제3섹터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윤경(2016). “이중멤버십 사회적기업가의 지원체계에 대한 경험 연구: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으로”,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8(1), pp.53-85.
- 박성훈(2009). “사회적 연대의 재생산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 한국인사관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백학영·조성은(2009).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 전환 가능성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36(3), pp.269-297.
- 백학영·김경휘·한경훈(2018).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과정과 변화에 대한연구”, 「한국사회정책」, 25(4), pp.265-299.
- 송두범·김종수·장효안·박춘섭·홍은일(2012). 「사회적경제 조직간 거래 활성화 방안」, 공주: 충남발전연구원.
- 안영규·박의룡(2011).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주요 성공요인에 대한 차이분석”, 「국제경영리뷰」, 15(3), pp.25-43.
- 여영현(2012).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성연구: 양국의 지하철 공조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6(1), pp.181-205.
- 오석홍(2011). 「조직이론」, 서울: 박영사.
- 원용찬(2012). 「칼 폴라니, 햄릿을 읽다」, 서울: 당대.

- 유재언(2012). “지속 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홀론 다
이내믹스의 적용”,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13(1),
pp.133-157.
- 이상윤·윤길순 역(2019). 「사회적경제의 힘: 통계방법론과 해외 사례들」,
Marie J. Bouchard and Damien Rousseliere(2015). The Weight
of the Social Econom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서울: 알마.
- 이수창·정우열(2014). “사회적기업의 성과 결정요인 분석: 사회적기업의 조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1(2), pp.127-148.
- 이용재·김봉환(2013). “사회적기업 자원연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콘
텐츠학회」, 13(6), pp.227-235.
- 이해진(2015). “한국의 사회적경제: 제도화의 정치과정과 지역화 전략”, 「지
역사회학」, 16(1), pp.135-180.
- 이현주(2015).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자활기업의 경험에 대한 질적 사례연
구”, 「사회과학연구」, 32(1), pp.97-124.
- 장승권·박윤규·이상훈·최우석·남원호(2008).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
에 대한 탐색적 연구: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체 ‘함께사는세상’
사례», 『사회적기업연구』, 1(1), pp.119-142.
- 장원봉(2009). “재분배·시장교환·호혜의 복합경제로서 사회적 기업 인센티
브 구조에 대한 이해와 쟁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9, pp.27-48.
- 장원봉·장효안·남원호(2009). 「한국의 노동통합 사회적기업에 관한 연구」
서울: 사회투자지원재단.
- 장종익(2017).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5년의 성과와 혁신과제”, 협동조합기본
법 시행 5년 평가와 향후 혁신과제 토론회 자료. 2017.11.28 국회도
서관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 정대용·김민석(2010). “조직구성원의 사회적 가치추구와 경제적 가치추구가
사회적 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
구」, 23(5), pp.2299-2321.
- 정상민(2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이해관계자 경영에 대한 연구”, 부산대
학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정아윤(2008). “자활공동체의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가능성 연구”, 「사회적

- 기업연구」, 1(2), pp.91-116.
- 정원오·김형돈(2019).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복합목적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다중이해관계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2), pp.57-84.
- 정원오·김형돈·송선영(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1(3), pp.101-135.
- 정진필·김일태·유동국 역(2000). 「기업이론: 조직의 경제학적 접근방식」, Douma, S. and Schreuder, H(1998). *Economic Approaches to Organizations*,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조상미·권소일·김수정(2012). “조직요인은 사회적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사회복지학」, 64(3), pp.29-50.
- 지규옥·김홍주(2018). “자활사업의 대안적 실험: 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연구」, 26(2), pp.81-102.
- 채종현·최준규(2012).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에 관한 연구: 이탈리아 사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4(3), pp.195-225.
- 최석현·남승현(2015). “사회적기업의 성과모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6(1), pp.133-155.
- Bode, I., Evers, A. & Schulz, A.(2006).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in Europe: can hybridization be sustainable?”, Nyssens, M,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Abingdon: Routledge, pp.237-258.
- Campi, S., Defourny, J. & Grégoire, O.(2006). “Work integration social enterprises: are they multiple-goal and multi-stakeholder organizations?” Nyssens, M.,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Abingdon: Routledge, pp.29-49.
- Defourny, J.(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s”. Borzaga, C. and Deforny, J.,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1-28.

- Defourny, J. & Nyssens, M.(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Nyssens, M.,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Abingdon: Routledge, pp.3-26.
- Freeman, R. E(1984). Strategic ma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Pitman.
- Galuppo, L., Gorli, M., Scaratti, G., & Kaneklin, C.(2014) "Building Social Sustainability: multi-stakeholder processes and conflict management", Socially Responsibility Journal, 10(4), pp.685-701.
- Gardin, L.(2006). "A variety of resource mixes inside social enterprises" Nyssens, M. ,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Abingdon: Routledge, pp.111-136.
- Haugh, H.(2005). "A research agenda for social entrepreneurship", Social Enterprise Journal, 1(1), pp.1-12.
- Laville, JL. & Nyssens, M.(2001). "The social enterprise Towards a theoretical socio-economic approach", Borzaga, C. and Deforuny, J., 「The Emergence of Socail Enterprise」, London: Routledge, pp.312-332.
- Maisel, R. & Persell, C. H.(1996). How Sampling Works, California: Pine Forge Press.
- OECD(1999). Social Enterprises, Paris: OECD publication.
- Pestoff, VA.(1992). "Third sector and co-operative services: An alternative to privatization", Journal of Consumer Policy, 15(1), pp.21-45.
- Putnam, R(1993). Making Democracy Wor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pson, J.D.(1967). Organizations in Action, New York: McGraw Hill.
- 신명호(2017), (<http://www.ksif.kr/?p=10015>). (검색일: 2020.03.15.)
- Alter, K(2007),
(https://www.globalcube.net/clients/philippson/content/medias/download/SE_typology.pdf) (검색일: 2020.01.1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ingle-Type and 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 Focusing on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s,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Kim, Hyeong Don*

< Abstract >

This study aimed at comparing single-type and 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as regards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s, and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First, multiple goals refer to the pursuit of diverse goals. The dominant goal of 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s the third sector, while the dominant goal of single-type ones is the second sector. Second, multiple stakeholders refer to diverse stakeholders. 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volve more diverse stakeholders than single-type ones. The most complex trip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nvolve the largest numbers of stakeholders. Third,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refers to mobilizing resources from diverse sectors. Single-type and plural-type are homogenous.

**Key words : single-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plural-type social economy organization, multiple goals,
multiple stakeholders, multiple resource mobilization**

투고일: 2020.03.24 | 심사완료일: 2020.05.28 | 게재확정일: 2020.05.28

* research professor, social enterprise research center, Sungkonghoe University

김형돈(金亨暉) 현재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며, 성공회대학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특성에 관한 연구” (2019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학문적 관심분야는 복지국가,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 등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제적·사회적 특성 비교연구(2019)’, ‘정부지원이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다원적 특성에 관한 연구(2019)’, ‘사회적경제 조직의 하이브리드 유형에 관한 연구(2019)’, ‘사회적 경제 조직의 복합목적 특성이 복합자원동원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2019)’,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특성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인과경로연구(2015) 등이 있다. (moneykim77@naver.com)

